

월별 이슈에 맞춰 로드맵 세우자

고교 1학년 학습 가이드

고1 학생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됐다. 고등학교 입학 후 첫 학기는 누구나 긴장되었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향후 고등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2024년 입시...학생부 기재사항 체크해야=대입 정시모집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시의 비중이 더 크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수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방과 후 활동,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개인적으로 수행한 봉사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활동을 비롯해 교내 대회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회를 준비하거나 지나치게 봉사활동 시간을 늘릴 필요는 없어졌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앞서 시기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챙겨둘 필요가 있다. 학력평가와 학교 학사일정을 기반으로 월별

학생부 기반 수시 대비

달라지는 기재사항 알아둬야

문과·이과 선택 고민

계열 정해놓고 진로활동을

이슈들을 확인해 로드맵을 세워보자. 고등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를 통해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나 시험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우선 3월25일, 6월3일, 9월1일, 11월24일에는 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으니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본 뒤 취약단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4월에는 중간고사, 7월에는 기말고사가 예정된 만큼, 3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 준비하면 좋다.

5~6월에는 교내대회나 진로활동 등 관심 분야에 맞는 활동에 참여해보고, 8월에는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고 2학기 예습시간을 갖도록 하자. 9~10월과 12월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11월에는 교내활동 결과물 발표 등 학교행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다.

◇문과냐 이과냐?...나의 관심분야 탐색 시작도=현재 고등학교 과정은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고 공통 과정을 밟으면서 자신의 흥미에 따라 심화하고 싶은 분야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공부한다. 대체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우고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따라서 고1 때는 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과영역에서는 다르다. 관심분야를 탐색해 대략적으로 문과나 이과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은 이유다.

진로가 막연한 것보다는 대략적인 계열 정도는 좁혀 놓는 것이 동아리 선택이나 진로활동을 계획하는데 수월하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 이수했는지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고등학교 입학에 앞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계획 및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차분히 대입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석웅(가운데 오른쪽) 전남도교육감과 조희연(가운데 왼쪽)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순천 이화서당에 전남 농산어촌유학 인증 농가 인증판을 부착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서울 초·중학생 82명 '전남 유학'

초13·중7개교에서 함께 공부

55명은 가족 전체 이주해 생활

서울 초·중학생 82명이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으로 전남교육의 품에 안겼다. 이들은 농산어촌에 최소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현지 학생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농산어촌 유학생 환영식'을 열고, 전남 학교로 전학을 확정된 서울 학생들을 전남 교육가족으로 맞이했다.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학생들이 전남농산어촌 학교로 전학, 생태친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학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그 동안 관련 사업

을 진행해왔다.

서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초등학교생 66명·중학생 16명 등 모두 82명이 최종 전학을 결정했다. 이 중 가족 전체가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가에서 생활하는 '농가형' 24명, 해당 지역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센터형'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전남 지역 20개 학교(초 13·중 7개교)에 배정돼 오는 3월 개학과 함께 전남교육 가족으로 자리잡는다.

전남 학교에 전학한 서울 학생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현지 학생과 더불어 공부하게 된다. 또 전남의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으며,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에서 성장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여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양성과정 3개 유형 모두 A등급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유일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교육부 실시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임을 입증했다. 광주여대는 전국 4년제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양성과정 3개 유형(교육과·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최근 2020년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54개교 중 광주여대가 유일하게 양성과정 3개 유형인 ▲교육과(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교직과정(간호학과, 미용학과, 상담심리학과, 식품영양학과) ▲교육대학원(미용교육전공)에서 각각 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의 정량 및 정성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5주기 진단 결과에 따라 C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교원양성 기능을 폐지에 사범대 및 일반대의 교육과정 130여명, 교직과정 1800여명, 교육대학원 1200여명 등 총 3200여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 교원양성기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광주여대는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게 된다.

광주여대 한민석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자체진단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양성 시스템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라며 "최우수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은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3개 유형의 과정이 모두 A등급을 받아 명실상부한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임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전문, 창의, 나눔의 핵심역량을 고루 갖춘 교육 전문가 양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ROTC 후보생 59기 임관식.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최근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 59기 임관식을 가졌다. 광주대 학군단은 임관식을 통해 대한민국 장교 소위 28명(육군 27명·해병대 1명)을 배출했다. 광주대 학군단은 국방부가 실시하는 '2020년도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군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021학년도 '중학 문해학력인정기관' 지정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부설 평생교육원이 2021학년도 '중학 문해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순천과 고흥에 이어 전남에서는 세번째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60년의 역사 속에 1만7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사회 만학도의 요람이다.

그동안 부설 평생교육원은 기존 초등학교학력인정 문해교육만을 담당했다.

이번 '중학 문해학력인정기관' 지정으로 공부하고 싶으면서도 몇 년째 초등문해반에 머물러 있는 고령의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이 열렸다.

중학 문해학력인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학력을 가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성인 중·고등학교

와 차이가 있다면 3년 과정이며, 주3회 수업을 받는 것이다. 이번 중학 문해학력인정기관은 고령의 학습자들이 학습 부담없이 중학생생활을 즐길 수 있고, 더 나아가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로 초·중·고 과정에서 1000여명의 만학도가 공부하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개강하는 평생교육원 문해교육 프로그램에는 초등과정 20명, 중학과정 20명이 입학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